




이슈브리프
ISSUE BRIEF



발행일 : 2020년 12월 10일 (목)

CONTENTS

- 서울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니즈와 시사점
- 주거권보장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 필요성과 과제

이슈브리프

(IB 2020-15)

CONTENTS

- I. 서울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니즈와 시사점 / 1
- II. 주거권보장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 필요성과 과제 / 9

발 행 인: 지상욱

편 집 인: 김창배

편집위원: 임춘건, 이윤식, 나경태

편집간사: 김진솔

발 행 일: 2020년 12월 10일

발 행 처: 여의도연구원

인 쇄: 디엔시파크

Contents_

금주(12월 2째주)는 1인가구 정책니즈, '주거-복지' 연계 주거정책 등 2편의 이슈를 다뤘습니다. 제1편에서는 급증하는 1인가구의 세대별 분야별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. 제2편에서는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취지로 한 '주거기본법'의 기본 내용을 설명하고, 해당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거-복지정책의 연계성 방안을 모색했습니다.

제1편: 서울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니즈와 시사점 (장경수 선임연구원)

2010년 이후 서울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급증. 1인 가구는 전 세대에 걸쳐 전반적으로 증가세이며 관악구>중구>종로구>광진구 순으로 높은 편. 상당수가 고시원·원룸 등 비주거지에 전·월세로 거주하면서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부담에 직면. 또한 노후준비 부족, 건강·돌봄 위기, 안전 불안 등 잠재적 불안감에도 노출. 따라서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정책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세대별·분야별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

제2편: 주거권보장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 필요성과 과제 (이종인 수석연구위원)

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취지를 담은 '주거기본법'이 제정된 지 5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와의 조화·연계가 원활하지 못함. 향후 동 법의 입법 취지에 맞춰 주택문제와 주거복지 문제를 조화시켜 나갈 필요. 보고는 ① 임대주택 절대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 ②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, 수급대상 확대 ③ 주거기본법 상 유도주거기준의 명확한 설정 등을 주거와 복지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로 제언함

1. 서울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니즈와 시사점

작성: 장경수 선임연구원 (jang.gyeong.su@ydi.or.kr)

2010년 이후 서울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급증. 1인 가구는 전 세대에 걸쳐 전반적으로 증가세이며 관악구 > 중구 > 종로구 > 광진구 순으로 높은 편. 상당수가 고시원·원룸 등 非주거지에 전·월세로 거주 하면서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부담에 직면. 또한 노후준비 부족, 건강·돌봄 위기, 안전 불안 등 잠재적 불안감에도 노출. 따라서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정책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세대별·분야별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

1. 현황: 서울시 1인 가구는 증가세

- 2010년 이후 서울시 인구수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1인 가구수는 급증하고 있음
- 1인 가구 증가는 비혼, 이혼, 사별, 주말부부, 기러기부부 등 결혼 중심의 획일성에서 탈피한 생애모델의 다변화에서 기인

〈표 1-1〉 서울시 1인 가구 변화 추이

구분	2000년	2010년	2015년	2019년
인구수	9,885천명	10,064천명	9,904천명	9,741천명
가구수	3,109천명	3,751천명	3,914천명	3,896천명
1인 가구수	502천명	855천명	1,115천명	1,299천명
1인 가구 비율	16.1%	22.8%	28.5%	33.4%

출처: 인구총조사(통계청)

□ 청년, 중장년, 노년 등 전 세대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,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년층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짐

○ (세대별) 청년 47%, 중장년 26%, 노년 25%로 청년층 가구수가 가장 많으나, 모든 세대별 가구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
- 다만 고령화 현상으로 청년 및 중장년보다는 노년층에서 가구수 구성비에서 더욱 뚜렷한 증가를 보임

〈표 1-2〉 서울시 1인 가구 세대별 변화 추이

세대별	2010년	2015년		2019년	
	가구수	가구수	'10년 대비 증가(율)	가구수	'15년 대비 증가(율)
합계	855천명 (100%)	1,115천명 (100%)	260천명 (30%)	1,299천명 (100%)	184천명 (16%)
청년층 (20-39세)	442천명 (51%)	535천명 (47%)	93천명 (21%)	621천명 (47%)	86천명 (16%)
중장년층 (40-59세)	230천명 (26%)	332천명 (29%)	102천명 (44%)	338천명 (26%)	6천명 (1%)
노년층 (60세 이상)	183천명 (21%)	248천명 (35%)	65천명 (35%)	326천명 (25%)	78천명 (31%)

자료: 인구총조사(통계청)

○ (자치구별) 1인 가구는 관악(49.5%)이 압도적으로 많고, △중구(40.5%), △종로(39.4%), △광진(39.2%) 순으로 많이 거주함

- 세대별로 세분화해 보면 △청년층은 관악(65%), △중장년층은 중랑(37%), △노년층은 도봉(38%)에 많이 분포

- 성별로 세분화해 보면 △남성은 관악(46.5%), △여성은 강서(53.7%), 강남(57.7%)에 다수 거주

〈표 1-3〉 서울시 1인 가구 상위 10개 자치구 현황(2019)

구분	가구수	1인 가구수(비율)	1인 가구 비율
서울시 전체	3,896천명	1,299천명(100%)	33.4%
관악구	242천명	119천명(9.2%)	49.5%
중구	54천명	22천명(1.7%)	40.5%
종로구	62천명	24천명(1.9%)	39.4%
광진구	149천명	58천명(4.5%)	39.2%
동대문구	148천명	58천명(4.5%)	39.2%
금천구	99천명	37천명(2.9%)	38.0%
마포구	156천명	59천명(4.6%)	37.8%
영등포구	153천명	58천명(4.5%)	37.8%
용산구	93천명	35천명(2.7%)	37.7%
동작구	164천명	60천명(4.6%)	36.4%

자료: 인구총조사(통계청), 서울열린데이터광장

□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유입경로 다양화 및 장기화 지속

○ (유입경로) 청년층은 ‘학업·직장’, 중장년층은 ‘학교·직장/개인편의자유 /이혼·별거·사별’ 등 복합적, 노년층은 ‘이혼·사별·별거’가 주요 원인임

- 중장년 여성의 경우 중장년 남성보다 이혼·별거·사별이 상대적으로 높음

〈표 1-4〉 서울시 1인 가구 세대별 유입경로

세대별	학교 및 직장	개인편의·자유	이혼·별거·사별	이민, 이사 등	가족과의 불화	부모형제 등 사망	기타
청년층	67%	19%	1%	6%	1%	-	6%
중장년층	23%	27%	25%	6%	4%	4%	11%
↳ 여성	22.4%	24%	34.6%	13%	3.7%	1.8%	0.5%
노년층	6%	22%	55%	8%	3%	3%	3%

자료: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(2017)

2. 서울시 1인 가구의 특성과 정책 니즈(Needs)¹⁾

□ 좋은 점

- 1인 생활에 대해 1인 가구의 73%는 만족하고 있으며,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 가구 만족도가 낮아지며, 남성(69%)보다 여성(77%)의 만족도가 높음
- 한편 1인 가구의 최대 장점으로 △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(39%), △여가시간 활용(33%)을 응답
- 1인 가구의 절반은 여가시간에 혼자 △TV 시청(57.8%), △컴퓨터 게임·인터넷검색(25.8%), △문화예술활동(25%), △휴식(24.9%) 순으로 야외활동 등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소극적 여가 비중이 높게 나타남

□ 어려운 점

- 1인 가구 삶의 힘든 점은 ‘경제적 측면(34.4%)’이 가장 높고, △외로움과 불안감(27.5%), △가사활동(13.8%), △치안(13.6%), △주변의 시선(10.7%) 순으로 나타남
- 특히 중장년 여성이 가장 큰 경제적 불안을 보이는데, 혼인 해체(이혼·별거·사별)로 인해 갑작스럽게 1인 가구로 유입된 경우가 많은 편

□ 안전 실태

-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‘안전에 대한 불안감’, 특히 여성 청년층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주거지 불안감이 높음

1)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(2017)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작성

- 1인 가구의 18.1%는 주거지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, 여성 1인 가구(22.5%)가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
- 세대별로 △청년층 26.4%, △중장년층 18.5%, △노년층 20.2%로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중장년·노년층보다 주거안전에 더욱 민감함

□ 주거 유형

- 1인 가구의 77.3%는 ‘전·월세 및 비주거지(고시원, 원룸 등)’에 거주하고 있으며, 특히 청년층의 경우 월세 비중이 63%로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음
 - 주거형태: △월세 51.4%, △전세 25.0%, △자가 18.2% 등
 - 특히 청년층의 경우 고시원·원룸 비중이 34.2%로 급증(남성 37.6%, 여성 30.4%)
 - 세대별 월세 거주비율: △청년 63%, △중장년 51.3%, △노년 30.4%
 - 주거 불안정성 가장 높은 지역: △관악 61.3%, △강남 60%

〈표 1-5〉 서울시 1인 가구 주거형태

주거형태	고시원·원룸 등	연립/다세대	아파트	오피스텔	단독주택
1인 가구	23.6%	31.4%	21.4%	14.2%	9.1%
서울시 평균	5.6%	20.2%	42%	2.1%	30.1%

자료: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(2017)

□ 건강·돌봄

- 노년층으로 이동할수록 신체건강 염려, 경제적 빈곤과 결합된 의료비 부담 및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음

- 노년층은 신체건강이 좋지 않고(44%) 경제적 빈곤과 결합되어 의료비 부담(39%)과 의료기관 이용 등(20%)에 어려움이 커 이에 대한 의료 지원서비스 필요

〈표 1-6〉 서울시 1인 가구의 특성 및 정책 니즈

구분		특성 및 정책 니즈
청년층 (20·30대)	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·30대 여성 1인 가구와 비교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, 주거형태로 고시원과 원룸이 많음 - 지원정책 요구는 주택안정, 일자리 지원, 주거환경개선, 안전환경 조성, 건강증진 순
	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거형태로 연립·다세대(30%), 고시원·원룸(31%), 오피스텔(23%)의 거주 비율이 높음 - 생활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불안감(30%), 몸 아플 때(21%), 외로움(13%) 순으로 나타남 - 지원정책 요구는 주택안정, 주거환경개선, 안전환경 조성, 일자리 지원, 건강증진 순
중장년층 (40·50대)	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거형태는 연립·다세대(30%), 고시원·원룸(23%) 순인데, 여성보다 매우 높은 편 - 생활의 어려움으로 외로움(28%), 몸 아플 때(27%)로 많았고, 외로움은 여성보다 높은 비율 - 지원정책 요구는 △주택안정, △일자리 지원, △건강증진, △주거환경 개선 순으로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낮음
	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거형태는 연립·다세대(38%), 아파트(37%) 거주비율이 높음 - 생활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(40%), 몸 아플 때(25%)가 높고, 외로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- 지원정책 요구는 △주택안정, △주거환경개선, △일자리 지원, △건강증진, △안전환경 조성 순

자료: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(2017)로 재구성

3. 시사점

□ 1인 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

- 서울시는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복지, 주거, 안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
- 그러나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, 돌봄, 고독사 예방, 건강 등 한정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미흡한 실정
 - 특히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은 부족한 상황

□ 1인 가구의 특성 다양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 시급

- 가족의 기능과 가치관의 변화, 고령화 및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확대로 누구나 1인 가구로의 진입 및 이탈이 반복되며, 가구 구성의 유동성이 증가되어 1인 가구 증가세가 모든 세대로 확장되고 있음
- 1인 가구는 주거소득 열악, 노후준비 부족, 건강·돌봄 위기, 안전 불안, 사회적 편견 및 차별 경험 등 해결에 대한 다양한 니즈와 잠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1인 가구 중 경제력과 주거여건에 따라 식생활, 안전, 사회적 고립 등 생활상의 다양한 제약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실질적 대책을 세울 필요

〈표 1-7〉 1인 가구를 위한 세대별, 분야별 정책 포인트

구분	청년층	중장년층	노년층
주거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거비 지원 - 1인 가구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 - 1인 가구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물품 보관 서비스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거비 지원 -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수리 장비 지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수리 장비 지원 		
경제적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소득 지원 - 1인 가구 일자리 지원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 가구 노후대비 재무컨설팅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시적 생계비 지원 -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 확대 - 대출금리 인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시적 생계비 지원 -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 확대 - 대출금리 인하 - 1인 가구 노후대비 재무컨설팅 	
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동네 이웃지킴이 신설 -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순찰대 운영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- 여성안전통합서비스 앱 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성안전통합서비스 앱 개발 	
건강증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 가구 건강동아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보건기관 동행 서비스 지원

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, 대응방안을 담은
〈이슈브리프〉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,
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